사랑이란 무엇인가?

2014120116 이진규

누군가는 사랑은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에서 다뤄지는 낭만적인 이야기들에 환호를 보내고, 그와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증거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조건을 비교하며 소개팅, 선 등과 같은 다소 인위적이고, 낭만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많은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낭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일까?

둘을 비교하기전에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한번쯤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꿔본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낭만적인 이야기를 다룬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어느정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대학생이 된 이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의 이야기처럼,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영화처럼 비엔나는 아니었지만, 다른 도시에서 운명적이라고 생각되는 인연을 만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렬하게 사랑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연인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이 현실에서도 찾아오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많은 작품들 속에서 그려내듯이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속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 끝을 마주하게 된다. 나의 경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은 즐거웠지만, 한국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양한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다양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지리적인 장벽은 결국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고, 금방 끝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의 끝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사랑이 끝난 것이 곧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이 사랑에게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자신이 당장 돈을 벌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굶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현실을 고려해서 대학대신에 일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지만 현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노는 것 대신 공부를 택하고, 직장인들은 사직서 대신 일을 택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속에서 자신들이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슬퍼하긴 하지만 그것이 낭만적인 사랑을 포기했을 때만큼 그렇지는 않다.

이 차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랑에 대한 환상 때문에 생긴다. 어릴 때부터 사랑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심지어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교육하는 매체는 주위에 한 없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며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할 때는 그리 슬퍼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낭만적인 사랑을 포기할 때는 거대한 괴로움과 좌절이 동반 되는 것이다.

이런 좌절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여러가지 길을 택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서 다닌다.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좌절하더라도 절대 포기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는 이제 낭만적인 사랑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찾으러 온다. 인생의 동반자는 필요하지만 사랑에 목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사랑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조금 덜 가슴이 뛰더라도 나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등 사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궁무진하다. 누군가는 이런 사랑을 속물적이라고 욕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속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직장을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그들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다. 무슨 일을 하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 등 최대한 많은 사항을 고려하려 노력한다. 이는 자신이 거주할 집을 고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의 구조가 어떠한지, 방음은 잘 되는지, 수도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등, 많은 사항들을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할 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위와 같이 현실적인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덜 아름답다. 또한 이렇게 낭만의 환상을 깨고 현실속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사회는 한번의 실수가 때로는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는 치열한 경쟁사회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다른 것 들을 선택 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사랑에 조건을 달고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속에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보인다.